

KT에 진심인 장성우...4년 42억 속전속결

에이전트 없이 혼자 협상에 나서 "끝까지 우승까지 팀과 함께 성장 '우승포수'란 팬들의 말 듣기 좋아 남은 4년, 더 좋은 모습 보여줄것"



20일 4년 총액 42억 원에 KT 잔류를 택한 장성우는 구단과 직접 협상하며 합의점을 찾았다. '우승포수'로 성장할 수 있었던 KT에 대한 애착과 잔류 의지가 워낙 강했기에 대리인을 내세우지 않았다. "남은 4년은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그의 각오에 KT를 향한 애정이 녹아있다. 스포츠동아DB

에이전트, 우리말로로는 대리인이다. 선수가 운동에 전념하는 사이 복잡한 쉐범을 대신해 구단과 협상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하지만 대리인을 대리해 협상에 나선 선수가 있다. '우승포수' 장성우(31)는 그만큼 KT 위즈에 진심이었다.

KT는 20일 프리에이전트(FA) 포수 장성우와 4년 총액 42억 원(계약금 18억·연봉 5억·옵션 최대 4억)에 도장을 찍었다. 이승용 KT 단장은 "통합우승의 주역인 장성우와 다시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 탁월한 투수 리드를 바탕으로 젊은 투수진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데 기여한 선수다. 타석에서도 꾸준히 중장거리포를 생산하는 등 공수 겸장 포수로 앞으로 중심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8년 신인드래프트 1차지명으로 롯데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은 장성우는 2015시즌 도중 5대4 대형 트레이드로 KT 유니폼을 입었다. 올해까지 740경기에서 타율 0.259, 65홈런, 342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719를 기록했다. 타석에서 찬스마다 해결해주는 능력도 확실하지만, 젊은 투수들에게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주며 좋은 멘토이자 배터리 파트너

라는 평가를 받는다. 배제성, 소형준 등 젊은 투수들이 언제나 "(장)성우 형"을 얘기하는 이유다. FA 시장 개장 직후부터 지금까지, 장성우는 늘 구단과 협상 테이블에 직접 앉았다. 대리인이 있었음에도 그랬다. 계약 발표 직후 연락이 닿은 장성우는 "첫 얘기는 직접 듣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그

런데 구단에서 '우리는 무조건 너를 잡을 것이다. 앞으로 오랫동안 함께할 텐데 나쁜 얘기로 깎아내리고 싶진 않다. 감정 상하기 싫다'고 해주셨다. 그래서 혼자 협상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했다. 한 번도 감정이 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무래도 몸값을 올리는 데는 선수보다 대리인 쪽이 더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를 주면서까지 에이전트와 계약한다. 하지만 장성우에게는 KT에 대한 애착, 또 남겠다는 의지가 더 컸다.

"창단 멤버는 아니지만 1군 첫해부터 함께했다. 끝까지 시작해 우승까지 팀과 함께 성장한 느낌이다. 우리 팀 팬들이 계속 생각났다. 끝까지 할 때도 경기에 저도 박수를 보내주셨던 분들이다. 정말 놀라웠다. 그 덕에 드림같은 우승을 할 수 있었다. 팬들이 '우승포수'라고 해주시는데, 그 말이 너무 듣기 좋다. 지금까지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생각뿐이다."

KT에선 향후 장성우에게 타격보다 수비 쪽에 기대를 더 걸고 있다. 우승, 그리고 FA 계약까지 따냈기 때문에 장성우로서도 2022년을 준비하는 각오가 남다르다. FA 계약 발표 당일인 20일에도 수원 KT위즈파크에서 담담하게 나온 이이다. 그는 "창피한 말을 듣고 싶진 않다. 남은 4년은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다들 칭찬의 저력을 보여주셨다고 다짐했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20일(한국시간) PNC 챔피언십을 마친 뒤 아들 찰리와 뜨겁게 포옹하고 있는 타이거 우즈(왼쪽). 우즈는 "아들과 함께 해 행복하다"고 말했다. 윌렌드(미 플로리다주) | AP뉴시스

"아빠 그렇게 치지마"...아들과 행복한 신경전

▶ '황제 우즈, 살아있네' 1면에서 이어집니다

우즈는 "즐겁게 경기하는 것과 보기를 하지 않는 것, 두 가지 목표를 세웠는데 이를 모두 달성했다"면서 "불과 몇 주 전만해도 이렇게 찰리와 경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든 것에 감사한다. 골프는 내 인생이고 다시 기회를 얻어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지난해 샷 루틴은 물론 서 있는 자세까지 '아빠 판박이'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던 찰리는 이번에도 '리틀 우즈'다웠다. 우즈는 "알레르기가 있어 코를 비비는 동작도 똑같다"고 웃은 뒤 아들과의 '기본 좋은 신경전'도 털어냈다. "찰리가 어제와 오늘 몇 차례나 '아빠 그렇게 치지 마'라고 말했다"면서 "그래서 찰리에게 '너나 잘 처'라고 받아쳤다"고 귀띔했다. 이벤트 대회인 덕분에 주최 측 배려로 이를 연속 카트를 타고 라운드를 소화한 우즈는 "내 꿈은 골 찰리 옆에서 다시 18홀을 걸으며 플레이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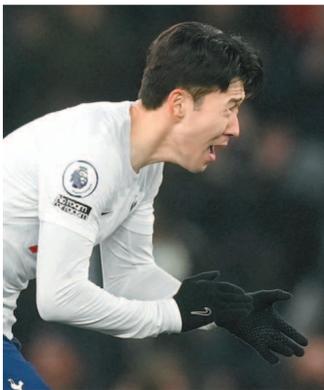
우즈의 샷은 전성기에 비해 파워는 조금 부족해 보였다. 치명적 부상을 당했던 오른쪽 다리 탓에 스텐드도 평소보다 조금 넓게 섰다. 우즈는 "경쟁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두 번 다시 (PGA 투어) 풀타임 일정을 소화하진 못할 것"이라고 냉정하게 자신의 현실을 돌아본 뒤 "투어 선수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들 리틀 존 찰리와 짝을 이뤄 1라운드에서 1타 차 공동 2위에 랭크됐던 찰리는 2라운드에서 15타를 줄이며 최종 27언더파 117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아버지와 함께 출전한 저스틴 토마스도 아들과 팀을 이룬 스튜어트 싱크(이상 미국)가 나란히 24언더파 공동 3위에 자리했다.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자 자격으로 여자 선수로는 유일하게 이번 대회에 나선 벨리 코다(미국)와 아버지 페트로는 17언더파로 12위에 올랐다. 페트로는 메이저대회인 호주오픈 단식에서 우승하고 한때 세계랭킹 2위에도 올랐던 테니스 스타 출신이다.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인 코다는 '우상' 우즈와 함께 사진을 찍은 뒤 "꿈을 이뤘다"고 말했다.

코로나 이겨낸 손흥민, 300경기 자축골

14일 만에 나선 리버풀전서 7호골 "더 달릴 수 없을만큼 최선을 다했다" 2-2 무승부 토트넘, 리그 7위 유지



토트넘 손흥민이 20일(한국시간)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리버풀과 홈경기 후반 29분 2-2 동점골을 터트린 뒤 환호하고 있다. 토트넘 통산 300경기 출전을 자축하는 115번째 골이었다. 런던 | AP뉴시스

토트넘 통산 300경기를 자축하는 골을 뽑아낸 손흥민(29)이 팀의 에이스를 넘어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손흥민은 20일(한국시간)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2021~2022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8라운드 리버풀과 홈경기에 선발 출전해 후반 29분 리그 7호 골을 뽑아내며 팀의 2-2 무승부에 기여했다. EPL 3경기 연속 골이자,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콘퍼런스리그(UECL)까지 포함하면 올 시즌 8호 골이다. 1-2호 골러가던 토트넘은 손흥민의 동점골 덕분에 승점 26(8승2무5패)를 쌓아 7위를 지켰다.

손흥민과 토트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슈로 인해 14일 만

에 경기를 치렀다. 5일 노리치시티와 홈경기 후 선수단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손흥민 역시 확진자들 중 1명이었다. 결국 10일 스타드 렌(프랑스)과 UECL 조별리그 최종전을 시작으로 브라이튼&호브 알비온(12일)전~레스터시티(17일)전이 잇달아 연기됐다.

실전감각에 우려가 있었지만, 손흥민의 리버풀전 활약은 눈부셨다. 전반전부터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배후침투, 예리한 슈팅, 동료들 향한 키패스 등 전방위적 활약을 펼쳤다. 해리 케인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1-2로 끌려가던 후반 29분에는 해리 윙크스의 도움을 받아 동점골을 터트렸다. 현지 매체 풋볼런던은 "손흥민은 초반부터 활기가 넘쳤다. 득점하기 전까지 중요한 기회를 놓치진 했지만, 리버풀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칭찬했다.

경기 후 손흥민은 "치열한 경기라 매우 힘들었다. 더 달릴 수 없을만큼 최선을 다했다. 리버풀에서 버릴 반다이키가 빠졌지만, 우리는 준비한 대로 플레이했다"고 말

했다. 이어 "경기를 끝낼 기회가 많았는데 마무리가 좋지 않았다"며 승리를 놓친 아쉬움도 전했다.

토트넘 이적 후 300번째 경기에 출전한 손흥민에게 의미가 큰 경기였다. 2015~2016시즌 입단한 뒤 7번째 시즌을 보내며 에이스를 넘어 팀을 상징하는 선수로 도약했다. 이적 첫 시즌에는 새로운 무대에 적응하지 못해 부침을 겪었지만, 이후로는 줄곧 주전 자리를 지켰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조세 무리뉴,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 안토니오 콘테 등 수차례 사령탑이 바뀌었음에도 임지는 오히려 탄탄해졌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300경기를 치르는 동안 115골·67어시스트를 뽑았다.

한국선수들 중 EPL에서 가장 큰 족적을 남긴 박지성(전북 현대 어드바이저)과 비교해도 손색없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7시즌 동안 205경기를 뛰며 수준급 로테이션 자원으로 평가받던 박지성과 달리 손흥민은 토트넘의 핵심 중 핵심이다. 터너대담인 케인, 에릭 다이어, 위고 요리스 등과 함께 어느덧 팀 내에서 최고참급 선수가 됐다.

이승우 기자 raul1649@donga.com

300만 돌파 '스파이더맨'...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방역강화 오후 7시 이후 상영분 없어 토요 관객, 평소 토요일 수치 못미쳐 하루 관객 가장 많은 성탄절도 비관적

마블스튜디오의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이 감염병 확산 이후 최고의 흥행 성적을 기록했다. 15일 개봉해 첫 주말을 지나며 277만명(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 불러 모은 영화는 20일 현재까지 누적 300만 관객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극장가와 영화계에 드리운 침체의 그늘은 여전히 견디지 않고 있다.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스파이더맨)의 관객 동원 추이가 그 규모를 쉽게 해준다.

20일 영화사 하하필름스 이하영 대표는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로 극장이 밤 10시 이후 문을 닫은 지난 첫 주말 전국 극장 관객이 평소보다 20%가량인 40만 여명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영화 배급 전문가인 그는 개봉 첫 주 '스파이더맨'이 "전체 시장의 95%가량을 점유한 상황"을 토대로 관객 감소세를 설명했다. '스파이더맨'은 개봉 첫날인 15일 63만 여명, 다음날 39만여명, 금요일인 17일 44만명을 각각 불러 모았다. 토요일인 18일에는 금요일보다 155%가 늘어난 68만여명을 동원했다. 이 대표는 "하지만 금요일 관객보다 약 2배 많았던 평소 토요일 수치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12월이 극

장 성수기이며, 밤 7시 이후 상영분이 없어진 점을 감안하면 잠재관객을 더 놓친 셈이다"고 말했다.

더욱이 "서울지역 극장의 오후 8시 이후 관객이 24.5%로, 평균 32%보다 줄어들면서 전체 극장 관객수도 감소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어 "개봉 이후 평일 관객수를 토대로 추산하면 첫 주 300만명이 '스파이더맨'을 관람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보다 적은 277만명이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앞으로도 관객을 극장으로 불러들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연중 하루 관객이 가장 많이 찾는 성탄절에도 각 극장은 밤 10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이 대표는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게



스파이더맨

아니라, 시간이 모자라서 못 파는 상황이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영상관계회 등 영화단체들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영화산업의 피해를 호소하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